

교회는 나에게 편한집 인가 순례길 인가?

사도행전 15:13-20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20 년 전만 해도 대부분
폴더폰을 들고
다녔습니다.하지만 오늘
날 우리의 주머니 속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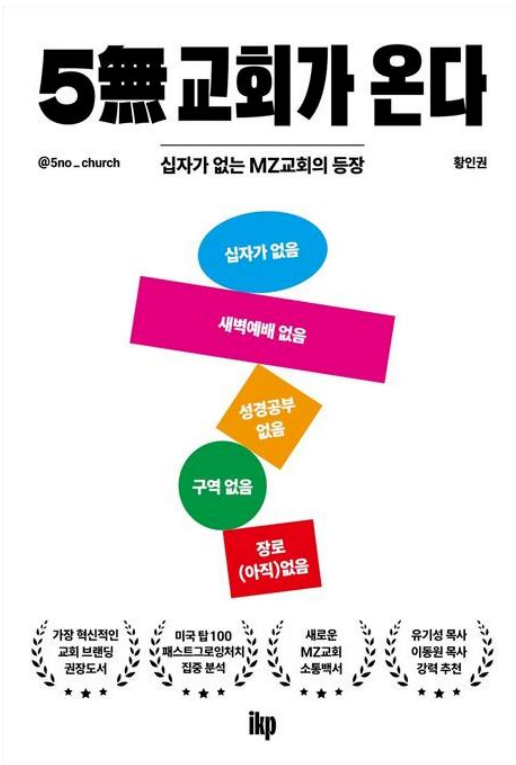
스마트 폰이 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이 1960 년대에 NASA 에서 달에
사람을 보낼 때 사용한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쇼핑, 은행
업무, 사람을 만나는 방식까지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미 좀 오래된 이야기기도 하지만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렇게 세상이 변하니,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해야 하나요?



최근에 <5 無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인터넷 상에서 아주 핫하게 거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편에서는 이 책을 아주 칭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칭찬이 무색하리만큼 비판과 경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인가 싶어서 최근에 구매해서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책이 말하는 핵심은 저자가 지난 10 여 년간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를 관찰한 결과, 성장하는 교회는 5 무(無)” 즉, 다섯가지가

없다고 정리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① 로고에 십자가 없음 ② 새벽예배 없음 ③ 성경공부 없음 ④ 구역 없음 ⑤ 장로(직분) 없음(혹은 아직 없음)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런 교회들이 청년 세대, 소위 MZ 세대에게 매력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사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적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진 M. 트웬은 이 시대를 Generation Me (나 세대)라 부르면서 그들에 대해 분석하기를,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적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에 자기 행복과 자기 표현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맛보고, 나에게 어떤 도움과 유익을 주는지가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저자가 책에서 어떤 택시 기사를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 택시 기사와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방금 전에 서울역에서 젊은 여성들을 태웠는데, 천안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이유가 바로 한강에서 친구들과 치맥 파티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이제는 한국 여행에서 필수 코스 중 하나가 한강에서 라면먹기 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에 올려서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레이트폴스에서 라면먹기를 하면 젊은이들에게 먹힐까?

청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준이 높고, 질 좋고, 진정성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격려해주는 공동체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니드들을 잘 맞춰 변화해 나가는 교회들이 특히 젊은층들을 사로잡으며 성장해가고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덮으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본질 회복
유연성
선교적
단순함

5無교회가 온다

@5no_church 십자가 없는 MZ교회의 등장 황인권

부정적?

본질 상실
지속성 부족
개인주의 위험
세속화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을 더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과감히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서 그들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문화에 맞추어 변하는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에 있습니다. Jesus is the Lord! Not me!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역사상 가장 개인적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Generation Me 의 니즈에 맞춰 형성되는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강조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하는 것이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문제는 오늘 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런 문제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과 세상 문화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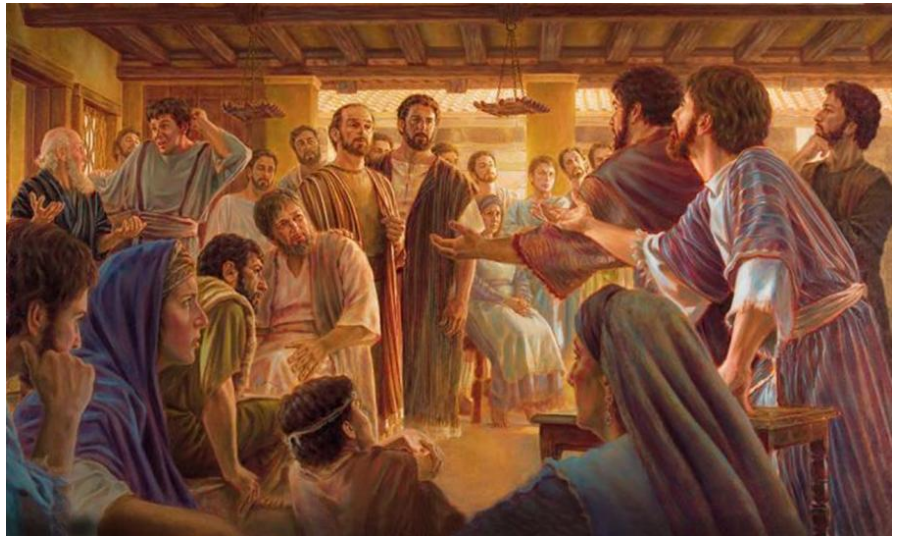
시대와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듯이, 그러한 변화 속에 기독교 역시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요청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 와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해야 하는가 그 갈등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고자 몸부림 쳤던 것이 기독교 교회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 장을 보시면 그들이 마주한 갈등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0-14 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과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의 1 차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나 율법 준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 신자들의 그들을 향한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15:1, 5)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표징(창 17 장)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11 절 말씀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20 절)

그리고 그것이 교회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변해야 할 것은 분명히 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긴 하되, 또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편한 집 과 순례길 의 긴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편한 집’과 ‘순례길’ 사이의 긴장

교회는 분명 *집처럼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상황, 배경, 언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꼭 무슨

조건을 갖춰야만, 어떤 언어를 써야만,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요 7:37).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배경, 언어, 문화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찾아오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복입은 원한경(왼쪽)
가족(1923년). 연희대학교
교수 시절 원한경의
부인(오른쪽)과 장남인
원일한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습. 이들의 한국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사진제공 서정민 연세대 교수

1세 원두우

Underwood,
Horace Grant
1859~1916

2세 원한경

Underwood,
Horace Horton
1890~1951

3세 원일한

Underwood,
Horace Grant II
1917~2004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각 문화 속에 자리잡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옷을 입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의 언어를 빌려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도 조선땅을 밟기 전에 수개월에 걸쳐 조선말 공부부터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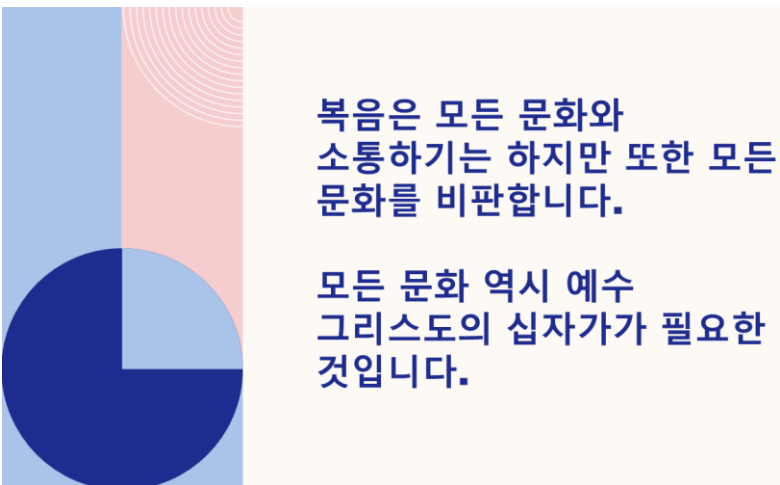
따라서 교회가 편한 집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웹사이트에 보시면, 교회 이름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t's like coming Home... 아버지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 또한 **순례길**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옛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무조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 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고후 5:17, 롬 12:2, 골 3:9-10 참고)

하나님은 우리가 옛 모습에 머물지 않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화와 소통하기는 하지만 또한 모든 문화를 비판합니다.** 모든 세상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듯이, 문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문화가 완벽한 문화가 없지요.

모든 문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체면, 위계질서, 혹은 미국 문화가 가진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어느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MZ 세대가 가진

문화적 특성 – 특히, 개인주의 성향,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딤후 3:1-5).

더 큰 그리스도론

Larger Christology



더 큰 그리스도론 (Larger Christology)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내가 속한 문화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면, 그것은 얇은 그리스도론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특정한 복음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지요. 세대와 세월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세대든, MZ 세대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에 복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복음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편안한 집”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례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길은 곧 우리가 죽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예수그리스도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마 16:24-25).

로마서 6 장 말씀도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롬 6:6-8; 갈 2:20, 2 Cor 4:10-11).

『5 無 교회가 온다』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없음. 새벽예배 없음. 성경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아직) 없음이 과연 복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가? 복음의 진지한 훈련 없이, 거룩함에 대한 자기 비판 없이, 내가 죽는 것 없이, 문화 친화만 남는다면 교회의 본질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 장은 두 원리를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교회가 편한집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순례길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음행은 반드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문화 안에 뿌리내리면서도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수 있는 통찰이자 지혜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스미스채플

교회는 나에게
‘편한집’인가
‘순례길’인가?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스미스채플은 Great
Falls 라는 미국 땅에
뿌리내린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세상 문화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타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여 지금은 글로벌 감리교회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여정을 향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곳에서 한국어 예배 공동체도 세워졌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벌써 3 개월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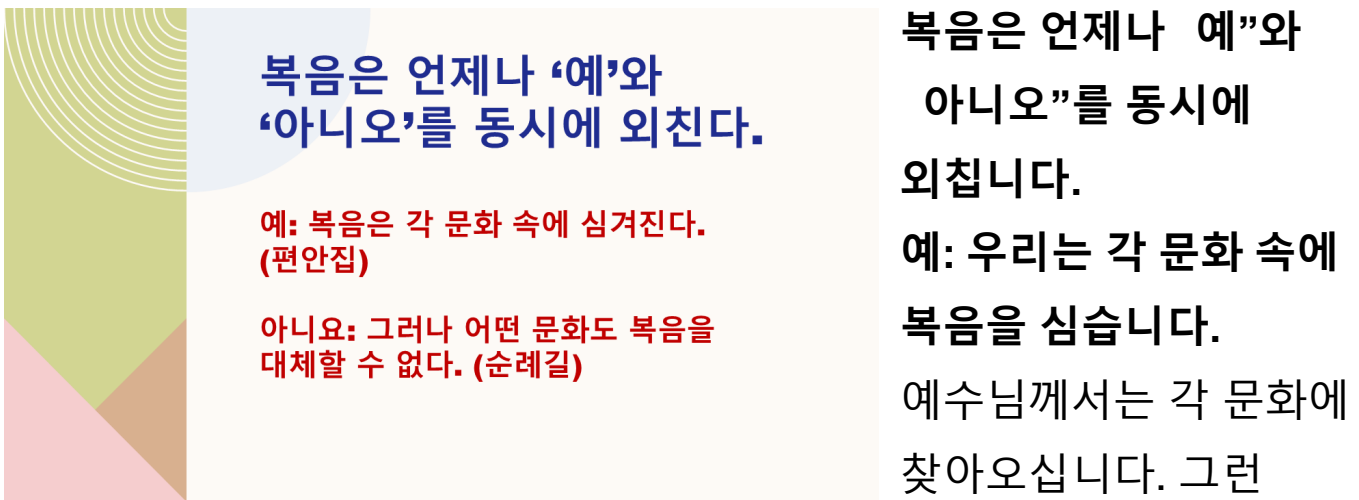
한국어 예배를 드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회중에게 스미스채플이 여러분들에게 집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국어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행여,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한 집’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동시에 순례길 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좋지만 한국적인 것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경건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서 편안함을 찾고 계신지요? 아니면, 순례길을 걷고 계신지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외친다.

예: 복음은 각 문화 속에 심겨진다. (편안집)

아니요: 그러나 어떤 문화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순례길)

복음은 언제나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외칩니다.

예: 우리는 각 문화 속에 복음을 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문화에 찾아오십니다.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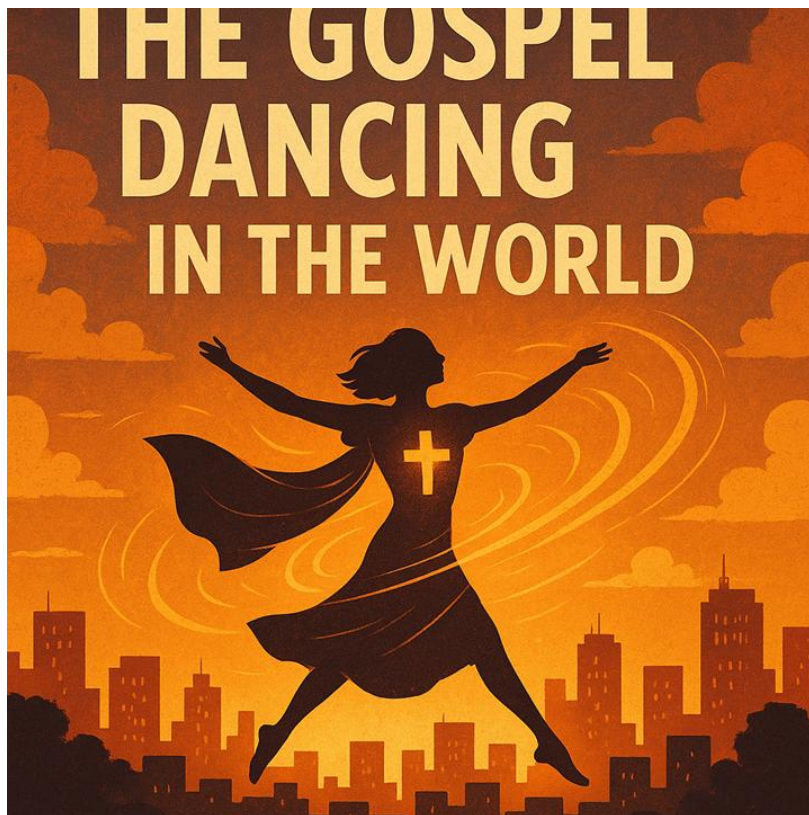
차원에서 한국어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비추어 거룩함으로 나가도록 나 자신을 또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도록 순례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처럼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순례길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 긴장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처럼 따뜻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순례길 같은 거룩한 도전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Great Falls 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긴장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플레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관계 맺는 데 있어 일률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 문화를 긍정해야 하고, 언제 그것을 약화시켜야 하며, 언제 복음을 문화 속에 심어야 하고, 언제 그것을 문화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시대정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 플레밍(Flemming), 151 쪽



이것은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음과 박자에 따라 스텝이 달라지고 손짓과 몸짓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교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전 4:7-11)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졌습니다. 영어예배와 한국어 예배 사이에서, 문화와 복음 사이에서, 또 편한집과 순례길 사이에서 **거룩한 춤을 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1. 나에게 교회는 지금 집처럼 편안한 곳”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길”입니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습니까?
2. 내 문화 속에서 복음이 편안히 자리잡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동시에 복음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